

코로나19 장기화에 '아동학대 사각지대' 급증

교사·기관 신고건수 줄어 전체 신고수도 대폭 감소

“학교서도 방역 강화로 파악 어려워...의무 면담 필요”

여행용 가방에 감금된 9세 남아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아동학대의 심사례·일반상담·동일신고 등)는 284건으로 지난해 동기 462건보다 39%(178건) 감소했다.

2018년 1~5월 595건, 2019년 1~5월 462건인 것에 비해서도 올해 신고건수 284건

은 확연히 적은 수치로 분석된다.

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아동학대가 발견되기 힘든 환경으로 변했다며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월 가까이 등교 개학을 하지 않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를 만날 기회가 줄었고, 방역지침 강화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 이웃이나 아동보호기관 등과의 접촉도 줄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의료인 직군, 교사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으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

수는 276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직원인 신고한 사례는 160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2018년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 258건 중 교직원이 148건을 신고해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단 19건에 그쳤다. 1년이 아닌 5개월 집계인 것을 감안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19건 중 교직원 신고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학교 교사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최근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신고건이 줄었고 그 영향으로 전체적인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도 교사가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

고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건이 줄었지만 발생 건 역시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학대 부모와의 접촉이 늘었지만 그에 반해 이웃이나 교사들이 학대를 인지할만큼 외부접촉이 없던 점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전 학년이 등교 개학을 마치고 광주지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친구는 물론 교사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아이들이 학대에 방치돼도 찾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일선 학교 한 교사는 “등교 개학 전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과 만나왔지만 학생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수준에 그쳤다. 매일 만나고 부딪하던 예전만큼 아이의 성격이나 집안 환경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등교개학 후에도 손 씻기, 실내화 갈아

신기, 마스크 쓰기, 무리지어 다니지 않기 등 각종 방역 지침을 안내하느라 쉬는 시간에 개별면담을 하거나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이 줄어들수록 의무적으로 면담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교사의 신고가 가장 많고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모 순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한다. 결국 누군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면담시간을 보장하거나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등을 강구해 아이들이 더이상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 정상 인근 멸종위기 야생화 복주머니란 ‘활짝’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노고단 정상부에 각종 야생화가 활짝 피어나 탐방객을 맞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노고단(老姑壇)은 지리산의 신령인 산신할머니에서 노고(老姑)와 산신할머니를 모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단(壇)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고단(1507m)은 대표적인 아고산대 지역으로서 과거 군부대주둔과 무분별한 야영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맨땅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지 복원사업 등 노력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노고단은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식물들이 구상나무, 쥐오줌풀, 큰앵초 등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복주머니란을 만나볼 수 있다.

복주머니란은 꽃의 모양이 마치 주머니를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분홍색으로 5~6월에 핀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였고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지금 노고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희귀한 식물이다.

쥐오줌풀은 꽃과 뿌리에서 쥐의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여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됐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노고단 정상부 일원은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산식물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탐방예약제를 통한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코로나 아직인데”...광주 고3 방과후 수업 재개 찬반 ‘논란’

내일부터 대부분 학교 돌입

시교육청 “각 학교장 재량”

“방역 철저 준수 공문 보내”

광주에서 고교 3학년생 시작으로 방과후 수업이 재개됐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방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 A고교에서 고 3학년생의 방과후 수업이 시작됐고, 11일부터는 광주 고교 대부분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와 고교 1~2학년은 25일쯤 방과후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들이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 결손 상황으로 인해 방과후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고3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대학 진학 등을 위해 방과후 학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들이 고2인 다른 학부모는 “서울



등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음성 관정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이나 교사도 증상으로 인해 검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방과후 수업이 학교의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데다가 학교들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 측에 방과후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광주지역 학교들의 방과후 수업 요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육청은 타지역에서도 방과후 수

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는 8일부터 방과후 수업에 들어갔고, 수개의 고교가 11일부터 방과후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방과후 수업이 각 학교장의 재량인 만큼 교사 등과의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문을 같이 보냈다”며 “교육부의 공문을 받고 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k5Shc69Pq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